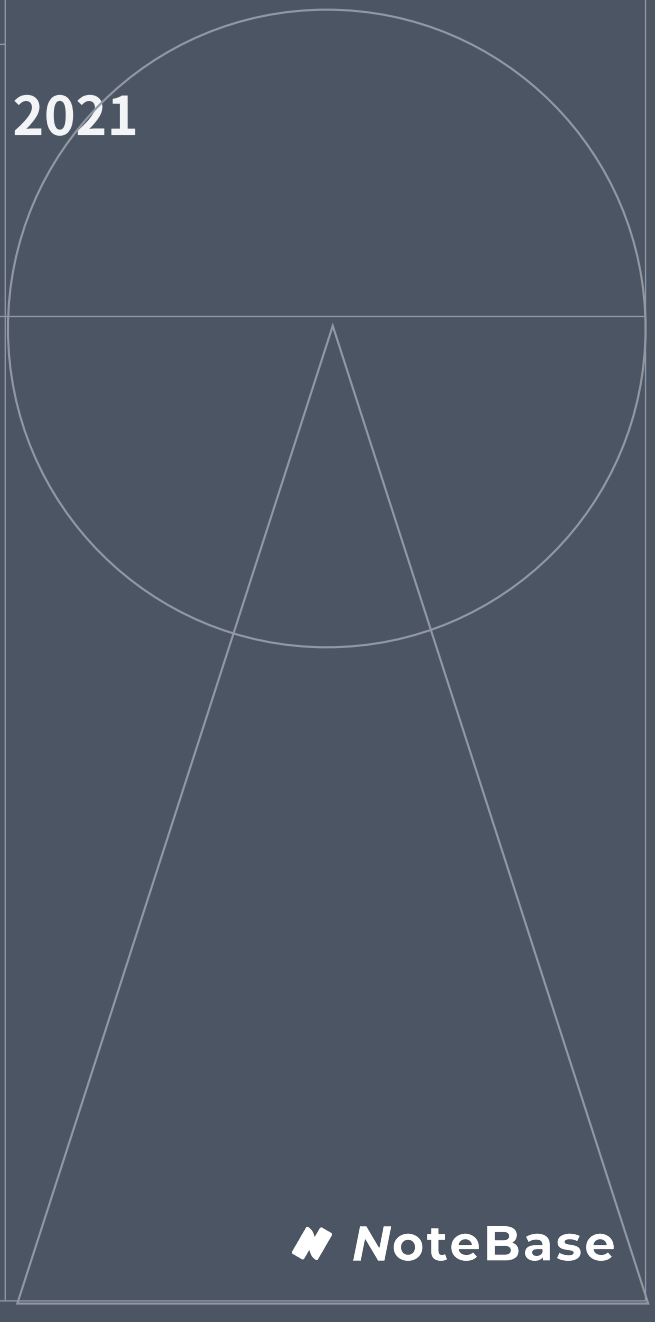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1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1

문 1.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① 바쁘다더니 여긴 웬일이야?

② 결혼식이 몇 월 몇 일이야?

③ 굳은살이 박인 오빠 손을 보니 안쓰럽다.

④ 그는 주말이면 으레 친구들과 야구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날짜를 물을 때도 '몇 일'이 아니라 **'며칠'**로 쓴다. '몇 월'과 달리 '며칠'은 하나의 단어이므로, '몇 월 며칠이야?'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웬일'은 **어찌 된 일**이라는 뜻으로, 의외라는 느낌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바쁘다고 했던 사람이 이곳에 온 것을 의아하게 여기는 문맥에 알맞다. 하나의 단어이므로 '웬일'로 붙여 쓴다.

② X: 그달의 몇째 되는 날을 묻는 말은 **'며칠'**이다. '며칠'은 어원이 분명하지 않아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말이므로, '몇 일'로 나누어 쓰지 않는다. 따라서 '결혼식이 몇 월 며칠이야?'로 고친다. 날짜를 물을 때뿐 아니라 '며칠 동안'처럼 날수를 나타낼 때도 '며칠'로 쓴다.

③ O: '박이다'에는 **손바닥, 발바닥 따위에 굳은살이 생기다**라는 뜻이 있다. '박인'은 어간 '박이-'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은 형태이다. 따라서 오빠의 손에 굳은살이 생겼다는 뜻으로 쓴 '굳은살이 박인'은 알맞은 표현이다.

④ O: '으레'는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또는 **'틀림없이 언제나'**라는 뜻의 부사이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야구를 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문맥에 알맞다. 이 뜻으로는 '으례'가 아니라 '으레'로 쓴다.

NoteBase

문 2.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은 것은?

① 언니는 아버지의 딸로써 부족함이 없다.

② 대화로서 서로의 갈등을 풀 수 있을까?

③ 드디어 오늘로써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다.

④ 시험을 치는 것이 이로서 세 번째가 됩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오늘'은 그 일을 끝내는 **시간상의 한계**를 나타내므로 '오늘로써'로 쓴다. '로써'는 수단·방법뿐 아니라 시간을 셈할 때의 한계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아버지의 딸'은 언니의 지위나 자격을 나타낸다. 지위나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로서'를 써서 **'아버지의 딸로서'**로 고친다.

② X: '대화'는 갈등을 푸는 수단이나 방법이다.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조사 '로써'를 써서 **'대화로써'**로 고친다.

③ O: '오늘'은 그 일을 마친 시점으로, 시간을 셈할 때의 한계를 나타낸다. '로써'에는 수단·방법을 나타내는 쓰임 외에 **시간을 셈할 때의 한계**를 나타내는 쓰임도 있으므로 '오늘로써'가 적절하다.

④ X: 시험을 치른 횟수를 셀 때 이번을 포함하여 세 번째가 된다는 뜻이다. 지위나 자격을 나타내는 '로서'가 아니라, 시간을 셈할 때의 한계를 나타내는 '로써'를 써서 **'이로써 세 번째가 됩니다'**로 고친다.

NoteBase

문 4.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관용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몹시 가난한 형편에 누구를 돕겠느냐? - 가랑이가 찢어질

② 그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어 물건을 쉽게 팔았다. - 호흡을 맞춰

③ 그는 상대편을 보고는 속으로 깔보며 비웃었다. - 코웃음을 쳤다

④ 주인의 말에 넘어가 실제보다 비싸게 이 물건을 샀다. - 바가지를 쓰고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호흡을 맞추다'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행동이나 의견을 조화시키다**라는 뜻이다. 중간에서 두 쪽을 연결해 주었다는 뜻으로는 **'다리를 놓아'**가 알맞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랑이가 찢어지다'는 **몹시 가난하여 살림이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몹시 가난한 형편'을 '가랑이가 찢어질 형편'으로 바꾸어도 의미가 통한다.

② X: '호흡을 맞추다'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행동이나 의견을 조화시킨다는 뜻이므로, 중간에서 거래 당사자들을 연결해 주었다는 의미와 다르다. 이 문맥에는 둘 사이를 이어 관계를 맺게 한다는 뜻의 **'다리를 놓다'**를 써서 '그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 물건을 쉽게 팔았다'로 바꾸는 것이 알맞다.

③ O: '코웃음을 치다'는 **상대편을 깔보고 비웃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속으로 깔보며 비웃었다'를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로 바꿀 수 있다.

④ O: '바가지를 쓰다'는 요금이나 물건값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하다**라는 뜻이다. 주인의 말에 넘어가 물건을 비싸게 샀다는 상황이므로 '바가지를 쓰고 이 물건을 샀다'로 바꿀 수 있다.

NoteBase

문 5.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때는 오월 단옷날이렷다.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 ㉠ 이때 월매 딸 춘향이도 또한 시서 음률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모를쏘냐. 추천을 하려고 향단이 앞세우고 내려올 제, 난초같이 고운 머리 두 귀를 눌러 곱게 땋아 봉황 새긴 비녀를 단정히 매었구나. ...(중략)... 장림 속으로 들어가니 ㉡녹음방초 우거져 금잔디 좌르르 깔린 곳에 황금 같은 꾀꼬리는 쌍쌍이 날아든다. 버드나무 높은 곳에서 그네 타려 할 때, 좋은 비단 초록 장옷, 남색 명주 홑치마 훨훨 벗어 걸어 두고, 자주색 비단 꽃신을 썩썩 벗어 던져두고, 흰 비단 새 속옷 턱밑에 훨씬 추켜올리고, 삼 껍질 그넷줄을 섬섬옥수 넌지시 들어 두 손에 갈라 잡고, 흰 비단 버선 두 발길로 훌쩍 올라 발 구른다. ...(중략)...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발밑에 작은 티끌 바람 쫓아 펄펄, 앞뒤 점점 멀어 가니 머리 위의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흔들흔들. 오고갈 제 살펴보니 녹음 속의 붉은 치맛자락 바람결에 내비치니, 높고 넓은 흰 구름 사이에 번갯불이 쏘는 듯 잠깐 사이에 앞뒤가 바뀌는구나. ...(중략)... 무수히 진퇴하며 한참 노닐 적에 시냇가 반석 위에 옥비녀 떨어져 쟁쟁하고, '비녀, 비녀' 하는 소리는 산호채를 들어 옥그릇을 깨뜨리는 듯. ㉣그 형용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 작자 미상, 「춘향전」에서 —

①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춘향이도 천중절을 당연히 알 것이라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② ㉡: 비유법을 사용하고 음양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서술하고 있다.

③ ㉢: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춘향의 그네 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춘향이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서술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의 '형용'은 겉으로 드러나는 생김새와 모습을 뜻하므로, 이 대목은 춘향의 **외면적 아름다움**을 예찬한다.
서술자가 직접 평가하는 편집자적 논평은 맞지만, 내면적 아름다움을 서술한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의 '천중절을 모를쏘냐'는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당연히 알 것이라는 뜻을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이다. 시서와 음률에 능통한 춘향이라면 천중절, 곧 단오를 모를 리 없다는 의미이다.

② O: ㉡의 '황금 같은 꾀꼬리'는 꾀꼬리의 빛깔을 황금에 빗댄 직유적 표현이다. 꾀꼬리가 **'쌍쌍이' 날아드는 모습**은 암수가 어울리는 음양의 조화를 나타낸다. 녹음과 방초, 금잔디가 어우러진 배경과 함께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여 준다.

③ O: ㉢의 '펄펄', '흔들흔들'은 움직임을 흉내 내는 **의태어**로, 음성상징어에 속한다. 티끌이 바람에 날리고 나뭇잎이 몸을 따라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춘향이 그네를 힘차게 타는 장면을 눈앞에 보이듯 생생하게 묘사한다.

④ X: ㉣의 '그 형용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는 서술자가 춘향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직접 드러낸 편집자적 논평이다. 여기서 '형용'은 겉으로 드러나는 생김새와 모습을 뜻하며, 세상 사람 같지 않을 만큼 아름답다고 예찬한 것이다. 따라서 '내면적 아름다움'을 **'외면적 아름다움'**으로 고쳐야 한다. 성품이나 인격의 아름다움을 평가한 대목은 아니다.

NoteBase

문 6.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 지난번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B: 어떤 연락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A: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 제안서를 승낙했다는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후속 사업 진행을 위해 지금쯤 연락이 와야 할 텐데 싶어서요.
B: 글쎄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 표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고객이 제안서 내용은 정리가 잘되었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A: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한 것이지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답변을 할 때도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쳤는데 말이죠. 목소리도 부드러웠고요.

①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 제안서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이해한다.

②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을 제안한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판단한다.

③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 판단한다.

④ A는 비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하여 고객의 답변을 제안서에 대한 완곡한 거절로 해석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B는 고객이 코로나 시기의 **사업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점**을 근거로 답변의 뜻을 판단한다. 이 발언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를 **완곡한 거절**로 해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A는 고객의 답변을 제안서에 대한 **승낙**으로 이해하여 후속 사업 진행을 위한 연락을 기다린다. 반면 B는 그 답변을 **완곡한 거절**로 해석한다. 두 사람은 같은 답변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

② X: A는 고객이 사업적 효과를 궁금해한다고 말했을 뿐, 사업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고객의 발언을 **부정적 평가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업적 효과에 대한 고객의 의문을 거절 의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는 사람은 B이다.

③ O: B는 고객이 제안서의 정리는 잘되었다고 하면서도 **코로나 시기에 이전과 같은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나타낸 점**에 주목한다. 제안서의 형식에 대한 칭찬과 사업의 효과에 대한 우려를 구별하고, 후자를 근거로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완곡한 거절로 판단한다.

④ X: A는 고객의 좋은 표정과 박수 등 비언어적 표현을 언급하지만, 이를 **승낙이라는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부드러운 목소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언급한다. 고객의 답변을 완곡한 거절로 해석하는 사람은 A가 아니라 B이다.

NoteBase

문 7.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무슈 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다.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
나는 그를 좋아할뿐더러 할아버지 같은 이로부터 느끼던 것의 몇 갑절이나 강한 보호 감정—부친다움 같은 것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
무슈 리의 아들인 현규와도 마찬가지다.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순전한 타인이다. 스물두 살의 남성이고 열여덟 살의 계집아이라는 것이 진실의 전부이다.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 바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를 비끄러매는 형식이 결코 '오누이'라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또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란다. 같은 일을—같은 즐거움일 수는 없으나 같은 이 괴로움을.
이 괴로움과 상관이 있을 듯한 어떤 조그만 기억, 어떤 조그만 표정, 어떤 조그만 암시도 내 뇌리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다. 아아, 나는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걸까? 행복이란,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태어나는 그 일을 말함이 아닌가?
초저녁의 불투명한 검은 장막에 싸여 짙은 꽃향기가 흘러든다. 침대 위에 엎드려서 나는 마침내 느껴 울고 만다.
—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에서 —

① '나'는 '현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② '나'와 '현규'는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며, 법률상의 '오누이'일 뿐이다.

③ '나'는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슈 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④ '나'는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률보다는 '현규'에 대한 '나'의 감정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나'가 무슈 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그 호칭을 거의 써 본 적이 없는 습관**이다. 무슈 리를 좋아하고 그에게서 부친다움도 느끼므로,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거부한다고 볼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란다'는 말에서 현규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난다. 특히 '같은 이 괴로움'을 함께 느끼기 바란다는 것은 **오누이라는 관계와 사랑 사이의 갈등을 현규도 겪고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② O: 무슈 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이고, 현규는 무슈 리의 아들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부모의 재혼으로 오누이라는 관계에 놓였지만 **혈연으로 이어진 남매는 아니다**.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순전한 타인이다'에서 '그런 의미'는 앞서 말한 혈연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선지의 '법률상의 오누이'는 이처럼 재혼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를 가리킨다.

③ X: '나'는 아버지라는 말을 거의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고 직접 밝힌다. 이어 무슈 리를 좋아하며 그에게서 강한 보호 감정과 부친다움을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이며,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슈 리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설명은 지문과 다르다.

④ O: '나'는 현규와 자신을 혈연관계가 없는 남성과 여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며, 두 사람을 묶는 형식이 '오누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현규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 바치기도 싫다고 한다. 이는 오누이라는 관계에 따르는 사회적 인습과 도덕률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현규를 사랑하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NoteBase

문 8.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수동적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분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이와 반대로 공격적인 태도는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 생각해서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다. 공격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곤 한다. 그러나 단호한 반응은 공격적인 반응과 다르다. 단호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 단호한 주장은 명쾌하고 직접적이며 요점을 찌른다.

그럼 실제로 연습해 보자. 어느 흡연자가 당신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묻는다. 당신은 담배 연기를 싫어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달갑지 않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① 좀 그러긴 하지만, 괜찮아요. 창문 열고 피우세요.

② 안 되죠.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요. 좀 참아 보시겠어요.

③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연기가 해롭잖아요.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 드릴게요.

④ 물어봐 줘서 고마워요.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러네요. 생각해 보시고서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차 안에서 피우지 말아 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차를 세워 주겠다고 제안하면, **자신의 의사 표현과 상대방 배려**를 함께 실천할 수 있다.

NoteBase

공통 해설

글쓴이가 말하는 단호한 대응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담배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되, 흡연을 원하는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해야 한다. 거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격적인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는 차 안에서의 흡연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표현한 말이다. 여기에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 드릴게요'라는 대안을 덧붙이면, 자신이 연기를 피하면서도 상대방이 차 밖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배려하게 된다. 자신의 의사를 지키는 것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함께 드러난다.

반면 '창문 열고 피우세요'는 담배 연기가 싫은데도 차 안에서의 흡연을 허용하므로 **자신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대응이다.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 역시 자신의 요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결정을 상대방에게 맡긴다. 두 대응 모두 글쓴이가 경계하는 수동적인 태도에 가깝다.

'안 되죠.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요. 좀 참아 보시겠어요'는 거절 의사는 분명하지만, 흡연의 해로움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참으라고만 요구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대안이 없어 정중한 배려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자신의 거절 의사를 유지하면서도 차를 세워 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대응이 글쓴이의 견해에 더 잘 부합한다.

NoteBase

문 9. (가)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집안 내력을 알고 보믄 동기간이나 진배없고, 성환이도 이자는 대학생이 됐으니께 상의도 오빠겉이 그렇게 알아놔라."
하고 장씨 아저씨는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의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두 번째도 거부감을 느꼈다. 사람한테 거부감을 느꼈기보다 제복에 거부감을 느꼈는지 모른다. 학교규칙이나 사회의 눈이 두려웠는지 모른다. 어쨌거나 그들은 청춘남녀였으니까. 호야 할매 입에서도 성환의 이름이 나오기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가),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자는 성환이도 대학생이 되었으니 할매가 원풀이 한풀이를 다 했을 긴데 아프기는 와 아프는고, 옛말 하고 살아야 하는 긴데."
— 박경리, 『토지』에서 —

① 오매불망(寤寐不忘)
② 망운지정(望雲之情)
③ 염화미소(拈華微笑)
④ 백아절현(伯牙絕絃)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할머니가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는 대목은 손주를 늘 마음에 두고 그리워했음을 보여 준다.
오매불망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러한 마음에 어울린다.

NoteBase

핵심 풀이

(가)의 문맥: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는 할머니가 손주를 잊지 못하고 애타게 생각해 왔다는 단서이다. 이어 손주가 대학생이 되어 할머니가 '원풀이 한풀이'를 했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빈칸에는 손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오매불망(寤寐不忘)'에서 '오(寤)'는 깨어 있음, '매(寐)'는 잠듦을 뜻한다. 따라서 오매불망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뜻하며, 손주를 늘 그리워한 할머니의 마음을 나타낸다.

망운지정(望雲之情): 객지에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한다. 지문은 할머니가 손주를 생각하는 상황이므로, 그리워하는 대상이 부모인 이 말과는 맞지 않는다.

염화미소(拈華微笑): 말로 설명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을 전함**을 이르는 말이다. 손주를 잊지 못해 눈물로 세월을 보낸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다.

백아절현(伯牙絕絃): 자신을 알아주는 벗을 잃은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지문은 **벗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할머니가 손주를 간절히 생각해 온 마음을 다루므로 어울리지 않는다.

NoteBase

문 1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나) 벌레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丹靑) 풍경 소리 날러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쳤다.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좌(玉座) 위엔 여의주(如意珠) 희롱
하는 쌍룡(雙龍) 대신에 두 마리 봉황(鳳凰)새를 틀어
올렸다.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푸르른 하늘 밑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패옥(佩玉) 소리도 없었다.
품석(品石) 옆에서 정일품(正一品) 종구품(從九品) 어느
줄에도 나의 몸둘 곳은 바이 없었다.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九泉)에 호곡(呼哭)하리라.

① (가)는 '산천'과 '인걸'을 대비함으로써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쌍룡'과 '봉황'을 대비함으로써 사대주의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선경후정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가)는 일정한 형식과 4음보의 율격을 갖춘 시조이지만, (나)는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얽매이지 않는 산문시**이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정해진 율격에 맞추었다고 볼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의 '산천은 의구하되'는 자연이 예전 모습 그대로임을, '인걸은 간 데 없네'는 과거의 뛰어난 인물들이 사라졌음을 나타낸다. **변함없는 자연과 사라진 인간의 대비**를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낸다. 마지막의 '태평연월이 꿈이런가'에도 지난날의 번영을 돌아보는 허무와 회한이 담겨 있다.

② O: (나)는 옥좌 위에 '쌍룡' 대신 '봉황'을 올린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큰 나라 섬기다'라는 표현과 연결한다. 이는 왕조의 권위를 장식하는 문양의 차이를 통해 **큰 나라에 종속되어 자주성을 잃은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라는 말에도 그 역사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③ O: 선경후정은 **경치를 먼저 제시한 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전개 방식이다. (가)는 옛 도읍의 산천과 인걸의 부재를 제시한 뒤 '어즈버' 이하에서 지난날에 대한 회한을 드러낸다. (나)도 낡은 궁궐과 옥좌의 모습을 묘사한 뒤, '나의 몸둘 곳은 바이 없었다'와 '눈물', '호곡'을 통해 소외감과 비애를 드러낸다.

④ X: (가)는 초장·중장·종장의 3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이 대체로 4음보로 이루어지는 정형시인 시조이다. 반면 (나)는 문장을 산문처럼 이어 가는 **산문시로, 일정한 음수나 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두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라는 설명은 (가)에는 해당하지만 (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물의 속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는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가르칠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에 임해야 하며,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강조한다. 반면에 일본의 어머니들은 대상의 '감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르친다. 특히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에 그러하다. 예를 들어 "네가 밥을 안 먹으면, 고생한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슬프겠니?", "인형을 그렇게 던져 버리다니, 저 인형이 울잖아. 담장도 아파하잖아." 같은 말들로 꾸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받는다. 곧 일본에서는 아이들에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것을 강조한다.

① 미국의 어머니는 듣는 사람의 입장, 일본의 어머니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강조한다.

② 일본의 어머니는 사물의 속성을 아는 것이 관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③ 미국의 어머니는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이면에 있는 감정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미국의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며, 일본의 어머니는 자녀가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도록 교육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글에서는 미국의 자녀 교육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일본의 자녀 교육을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미국과 일본이 강조하는 대화의 입장을 서로 바꾸었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강조하며, 오해가 생기면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본다. 일본에서는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도록 가르친다.

② X: 일본의 어머니들은 사물의 속성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친다. 밥을 먹지 않으면 농부가 슬퍼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례도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다.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가르치는 쪽은 미국의 어머니들이다.

③ X: 대상의 감정에 신경을 쓰고 행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도록 하는 것은 **일본의 교육 방식**이다. 미국의 어머니들은 특정 사물과 그 속성에 초점을 맞추며,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가르친다. 따라서 이면의 감정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연결할 수 없다.

④ O: 첫 문단에서는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미국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는다고 설명한다. 둘째 문단에서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 일본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받는다고 설명한다. 선지는 두 교육 방식의 특징을 각각 글의 내용에 맞게 연결하였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공지능(AI)은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은 생물학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애완동물이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AI)은 스스로 수학도 풀고 글도 쓰고 바둑을 두며 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어느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인간관계를 대신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은 배우면서 성장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공지능(AI)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인공지능(AI)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게으름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일상생활의 패턴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이 앱을 통해 좀 더 편리한 삶을 제공하여 사람의 뇌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일상에서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GPS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도를 보고 스스로 거리를 가늠하고 도착 시간을 계산했던 운전자들은 이 내비게이션의 등장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가라는 기계 속 음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다. 예전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잘 찾아가던 길에서조차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켠다. 이것이 없으면 자주 다니던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멀쩡한 어른도 길을 잃는다.

이와 같이 기계에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두뇌가 게을러진 것을 보여 주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삶을 더 편하게 해 준다며 지름길을 제시하는 도구들이 도리어 우리의 기억력과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있다. 인간을 태만하고 나태하게 만들어 뇌의 가장 뛰어난 영역인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① 인간의 인공지능(AI)에 대한 독립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②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③ 인공지능(AI)은 인간을 능가하는 사고력을 가질 것이다.
④ 인공지능(AI)은 궁극적으로 상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내비게이션에 길 찾기를 맡기면서 스스로 기억하고 판단하는 활동이 줄어든 사례는 **기계 의존에 따른 두뇌의 게으름**을 보여 준다. 글은 이러한 편리한 도구가 인간의 기억력과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게 만든다고 결론짓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운전자들은 익숙한 길에서도 내비게이션을 습관적으로 켜고, 그것이 없으면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 이는 인간이 기계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대한 의존이 커지는 모습**이다. 따라서 글의 내용에 맞게 고치면 인간의 기계 의존이 두뇌 활동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다는 진술이 된다.

② O: 내비게이션이 등장하기 전에는 운전자가 지도를 읽고 거리와 도착 시간을 스스로 계산했지만, 이후에는 기계의 안내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글은 이 사례를 통해 **기계가 사고 활동을 대신할수록 인간은 두뇌를 덜 쓰게 된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마지막 문단의 기억력·창조력 퇴보와 상상력 활용 감소도 이러한 부작용을 뒷받침한다.

③ X: 첫 문단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둘째 문단의 '차치하고'는 그 문제를 **논의에서 일단 제쳐 둔다**는 뜻이다. 이후 글의 초점은 인공지능의 사고력 향상이 아니라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문제로 옮겨 간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한다고 단정하는 대신, 글이 제시한 가능성과 실제 결론을 구별해야 한다.

④ X: 마지막 문단에서 상상력은 **인간이 지닌 능력**으로 제시된다. 기계에 의존하면 인간이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글의 설명이며, 인공지능이 상상력을 갖게 된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상상력과 관련한 글의 결론은 인공지능의 능력 획득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 활용 감소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국제기구인 유엔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이 공용어로 사용되나 그곳에 근무하는 모든 외교관들이 이 공용어들을 전부 다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에서의 공용어 개념도 유엔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는 것이지 모든 유럽연합인들이 열 개가 넘는 공용어를 전부 다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가 만일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다면 이는 한국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중 어느 하나를 알기만 하면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뜻이지 모든 한국인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하기만 하면 모든 한국인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은 공용어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망상에 불과하다.

① 유엔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유엔의 공용어를 다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유럽연합은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하여 공무상 편의를 도모하였다.

③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면 한국인들은 영어를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한국에서 머지않아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될 것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유럽연합의 복수 공용어 지정은 여러 언어 중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공용어를 배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글의 첫 문장은 유엔의 외교관들이 공용어들을 전부 다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다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표현은 글과 반대이며, **모든 공용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글에서는 유럽연합의 공용어가 여러 개이며, 그중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하여 공무상 편의를 도모하였다는 이해는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

③ X: 글은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하기만 하면 모든 한국인이 영어를 잘하게 된다는 믿음을 잘못된 것으로 지적한다. 공용어 지정은 **공식 업무에서의 언어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의 영어 능력을 높여 준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다면 어느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④ X: 글의 '만일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다면'은 공용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다. 실제 지정 계획이나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머지않아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악플이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정도가 심하다. 악플러들 가운데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들에게 악플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맛볼 수 있다.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발설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 한다.

그런데 자기 효능감은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된다. 마구 욕을 퍼부었는데 상대방이 별로 개의치 않는다면, 계속할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에서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그건 너의 생각'이라면서 넘겨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말도 안 되는 욕설이나 험담이 날아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소행으로 웃어넘기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개인주의는 여러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매긴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한국에는 그런 의미에서의 개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다. 남에 대해 신경을 너무 곤두세운다. 그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데, 한편으로 타인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면서 참견하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한다. 다른 한편으로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너무 예민하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인터넷 공간에서 맞물려 악플을 양산한다.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험담을 늘어놓고 당사자에게 악담을 던진다. 그렇게 약을 올리면 상대방이 발끈하거나 움츠러든다. 이따금 일파만파로 사회가 요동을 치기도 한다. 악플러 입장에서는 재미가 쏠쏠하다. 예상했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으면서 자기 효능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악플러는 자신의 말에 타인이 동요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

② 개인주의자는 악플에 무반응함으로써 악플러를 자괴감에 빠지게 할 수 있다.

③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일수록 타인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비판한다.

④ 한국에서 악플이 양산되는 것은 한국인들이 타인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과 관계가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일수록'은 글의 설명과 반대이다. 글에서는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 못해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말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기 효능감을 얻으려 한다고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첫째 문단에서는 악플러가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느낌**이다. 마지막 문단에서도 상대방이 발끈하거나 움츠러드는 반응이 악플러에게 이러한 느낌을 준다고 한다.

② O: 둘째 문단에서는 욕설을 들은 상대방이 개의치 않으면 악플러가 무시당했다고 느껴 **오히려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의 사람들은 비판을 '그건 너의 생각'이라며 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무반응은 악플러가 기대한 자기 효능감을 얻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③ X: 첫째 문단은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발설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 한다고 설명한다. 선지의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글이 설명하는 행동은 자기 효능감을 얻기 위한 공격적인 발설이며, 타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더 엄격해진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O: 마지막 문단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남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태도를 **타인에 대한 과도한 참견**과 **자신에 대한 평가에 예민한 반응**으로 나눈다. 전자는 쉽게 험담과 악담을 던지게 하고, 후자는 그 말에 발끈하거나 움츠러들게 한다. 글은 이 두 특성이 맞물려 악플러가 기대하는 반응과 자기 효능감을 제공하므로 악플이 양산된다고 설명한다.

NoteBase

문 15. 문 15.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이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수박을 먹는 기쁨은 우선 식칼을 들고 이 검푸른 ㉠구형의 과일을 두 쪽으로 가르는 데 있다. 잘 익은 수박은 터질 듯이 팽팽해서, 식칼을 반쯤만 밀어 넣어도 나머지는 저절로 열린다. 수박은 천지개벽하듯이 갈라진다. 수박이 두 쪽으로 벌어지는 순간, '앗!' 소리를 지를 여유도 없이 초록은 ㉡빨강으로 바뀐다. 한 번의 칼질로 이처럼 선명하게도 세계를 전환시키는 사물은 이 세상에 오직 수박뿐이다. 초록의 껍질 속에서, ㉢새까만 씨앗들이 별처럼 박힌 선홍색의 바다가 펼쳐지고, 이 세상에 처음 퍼져나가는 비린 향기가 마루에 가득 찬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한바탕의 완연한 아름다움의 세계가 칼 지나간 자리에서 홀연 나타나고, 나타나서 먹히기를 기다리고 있다. 돈과 밥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필시 흥부의 박이다.
— 김훈, 「수박」에서 —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의 '구형'은 **자르기 전 수박의 둥근 겉모양**을 나타낸다. 나머지 표현은 수박을 가른 뒤 드러나는 붉은 속살을 가리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 '구형': 공처럼 둥근 모양이라는 뜻이다. '검푸른', '두 쪽으로 가르는'이라는 앞뒤 표현을 보면, 칼로 가르기 전 **수박의 외형**을 나타낸다.

㉡ '빨강': 수박을 가르는 순간 초록색 껍질 안에서 드러나는 **붉은 속살**을 가리킨다. 껍질 자체가 빨갛게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대상이 껍질에서 속살로 바뀐다는 뜻이다.

㉢ '새까만 씨앗들이 별처럼 박힌 선홍색의 바다': 붉은 속살을 바다에, 그 안의 검은 씨앗을 별에 빗댄 표현이다. 따라서 '선홍색의 바다'가 가리키는 대상은 **씨앗이 박힌 수박의 속살**이다.

㉣ '한바탕의 완연한 아름다움의 세계': '칼 지나간 자리에서 홀연 나타나고', '먹히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으로 보아, 수박을 가른 뒤 드러난 속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리킨다.

㉡·㉢·㉣은 모두 가른 뒤 드러난 수박의 속살을 가리키며, ㉠만 자르기 전 수박의 외형을 나타내므로 지시 대상이 다르다.

NoteBase

문 16. (가) ~ (라)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철, 윤선도, 황진이, 이황, 이조년 그리고 무명씨.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던 이들이다. 황진이는 말할 것도 없고 무명씨도 대부분 양반이 아니었겠지만 정철, 윤선도, 이황은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 (가)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 쓰는 것을 즐겨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허균이나 김만중은 한글로 소설까지 쓰지 않았던가. (다)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우리말로 된 문학 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특별한 양반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양반들은 한문을 썼기 때문에 한글을 모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학자 박지원이 당시 양반 사회를 풍자한 작품 「호질」은 한문으로 쓰여 있다. (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정철도 이황도 윤선도도 한글로 작품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란 사실이다.

① (가): 그런데, (나): 게다가, (다): 그렇지만, (라): 그러나

② (가): 그런데, (나): 그리고, (다): 그래서, (라): 또는

③ (가): 그리고, (나): 그러나, (다): 하지만, (라): 즉

④ (가): 그래서, (나): 더구나, (다): 따라서, (라): 하지만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소수의 양반만 한글을 썼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부분은 앞의 주장을 제한하므로 **'그렇지만'**으로 잇는다.
마지막에는 한글 작품이 쓰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몰랐을 가능성에 반론을 제기하므로 **'그러나'**가 어울린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가) 그런데: 앞에서는 정철·윤선도·이황이 양반이었다는 신분을 설명하고, 뒤에서는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양반의 한글 사용을 이야기한다. 인물의 신분에서 한글 사용으로 **논의의 초점을 전환**하므로 '그런데'가 알맞다. 양반이라는 신분 자체가 한글 작품 창작의 원인인 것은 아니므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래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나) 게다가: 앞에서는 양반들이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글 사용을 설명한다. 뒤에서는 허균과 김만중이 한글로 '소설까지' 썼다는 사례를 보태어 **앞의 주장을 강화**한다. 따라서 내용을 덧붙이는 '게다가'가 알맞다. 두 내용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므로 반대 방향의 내용을 잇는 '그러나'는 어울리지 않는다.

(다) 그렇지만: 앞에서는 양반들의 한글 작품을 근거로 양반도 한글 쓰기를 즐겼다고 보았다. 뒤에서는 작품을 쓴 사람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였다면 대다수 양반은 한글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앞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반대 가능성과 한계**이므로 '그렇지만'이 알맞다. 앞의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과가 아니므로 '그래서'나 '따라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 그러나: 앞에서는 대다수 양반이 한문을 썼기 때문에 한글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하고, 한문으로 쓰인 「호질」을 사례로 든다. 뒤에서는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정철·이황·윤선도도 한글 작품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글쓴이는 한글 작품이 실제로 쓰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대다수 양반이 한글을 몰랐을 가능성에 반론**을 제기하므로 '그러나'가 알맞다. 선택 대안을 제시하는 '또는'이나 앞의 내용을 다시 풀어 말하는 '즉'으로는 이러한 방향 전환을 나타낼 수 없다.

(가)는 '그런데', (나)는 '게다가', (다)는 '그렇지만', (라)는 '그러나'로 연결되며, 이 조합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가)~(라)의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현재 우리 구청 조직도에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국, 복지국, 안전국, 보건소가 있었다.
(나) 오늘은 우리 시청이 지양하는 '누구나 행복한 ○○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다)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역 축제는 예년보다 규모가 줄어들었다.
(라) 공과금을 기한 내에 지정 금융 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① (가): '있었다'는 문맥상 시제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있다'로 고쳐 쓴다.
② (나): '지양'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한다는 의미인 '지향'으로 고쳐 쓴다.
③ (다): '지난달 수해로 인한'은 '준비 기간'을 수식하는 절이 아니므로 '지난달 수해로 인하여'로 고쳐 쓴다.
④ (라): '납부'는 맥락상 금융 기관이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아 거두어들인다는 '수납'으로 고쳐 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공과금을 내는 사람의 행위는 **'납부'**이고, 금융 기관이 그 돈을 받아 거두는 행위는 **'수납'**이다. (라)는 공과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문장이므로 '납부'를 그대로 써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의 '현재'는 지금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과거 시제인 '있었다'와 어울리지 않는다. 현재 조직도에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이므로 **현재 시제인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지양'은 어떤 것을 하지 않거나 피한다는 뜻이고, '지향'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한다는 뜻이다. (나)는 '누구나 행복한 ○○시'를 실현할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이므로 **목표를 향한다는 뜻의 '지향'**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지난달 수해로 인한'은 뒤의 명사 '준비 기간'을 꾸미는 형태여서 준비 기간 자체가 수해로 생겼다는 의미가 된다. 의도한 의미는 **수해 때문에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것이므로,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어 '지난달 수해로 인하여'가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에 이어지도록 고쳐야 한다.

④ X: '납부'는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내는 행위이고, '수납'은 돈이나 물품 등을 받아 거두는 행위이다. (라)에서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납부자이고, 지정 금융 기관은 그 돈을 받는 쪽이다. 따라서 **공과금을 내는 사람의 행위인 '납부'**를 유지해야 하며, 금융 기관의 행위를 뜻하는 '수납'으로 바꾸면 안 된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은?

서연: 여보게, 동연이.
동연: 왜?
서연: 자네가 본뜨려는 부처님 형상은 누가 언제 그렸는지 몰라도 흔히 있는 것을 베껴 놓은 걸세. 그런데 자네는 그 형상을 또다시 베껴 만들 작정이군. 자넨 의심도 없는가? 심사숙고해 보게. 그런 형상이 진짜 부처님은 아닐세.
동연: 나에겐 전혀 의심이 없네.
서연: 의심이 없다니……?
동연: 무엇 때문에 의심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서연: 음…….
동연: 공부를 하게, 괜히 의심 말고! (허공에 걸려 있는 탱화를 가리키며) 자넨 얼마나 형상 공부를 했는가? 이십일면관세음보살의 머리 위에는 열한 개의 얼굴들이 있는데, 그 얼굴 하나하나를 살펴나 봤었는가? 귀고리, 목걸이, 손에 든 보병과 기현화란 꽃의 형태를 꼼꼼히 연구했었는가? 자네처럼 게으른 자들은 공부는 안 하고, 아무 의미 없다 의심만 하지!
서연: 자넨 정말 열심히 공부했네. 그렇다면 그 형태 속에 부처님 마음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게.
— 이강백, 「느낌, 극락 같은」에서 —

① 불상 제작에 대한 동연과 서연의 입장은 다르다.
② 서연은 전해지는 부처님 형상을 의심하는 인물이다.
③ 동연은 부처님 형상을 독창적으로 제작하는 인물이다.
④ 동연과 서연의 대화는 예술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논쟁을 연상시킨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동연은 전해지는 부처님 형상을 의심하지 않고 **기존 형상을 본떠** 불상을 만들려 한다. 따라서 새로운 형상을 독창적으로 창조하는 인물로 볼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동연은 기존 형상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세부적인 형태를 연구하는 일을 중시한다. 반면 서연은 그 형상이 진짜 부처님인지 묻고, 형태 속에 부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따진다. 두 사람은 불상 제작에서 **중시하는 대상과 태도**가 다르다.

② O: 서연은 동연이 본뜨려는 형상이 흔한 것을 베낀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런 형상이 진짜 부처님은 아닐세'라고 말한다. 이는 전해지는 형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형상이 부처님을 제대로 드러내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이다.

③ X: 서연의 말에 따르면 동연은 이미 베껴진 부처님 형상을 다시 베껴 만들려고 한다. 동연도 이에 대해 '나에겐 전혀 의심이 없네'라고 답하며 기존 형상의 세부 형태를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동연은 형상을 독창적으로 제작하는 인물이 아니라 **전해지는 형상을 충실히 재현하려는 인물**이다.

④ O: 동연이 강조하는 얼굴·장신구·꽃 등의 형태는 예술의 **형식**에, 서연이 묻는 '부처님 마음'은 작품에 담겨야 할 정신적 의미인 **내용**에 대응한다. 외형의 세밀한 재현을 중시하는 동연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묻는 서연의 대립은 예술에서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을 연상시킨다.

NoteBase

문 19.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혼정신성(昏定晨省)이란 저녁에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봐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린다는 뜻으로 자식이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 살핌을 뜻하는 말로 '예기(禮記)'의 '곡례편(曲禮篇)'에 나오는 말이다. 아랫목 요에 손을 넣어 방 안 온도를 살피면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던 우리의 옛 전통은 온돌을 통한 난방 방식과 관련 깊다. 온돌을 통한 난방 방식은 방바닥에 깔려 있는 돌이 열기로 인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돌의 열기로 방바닥이 뜨거워지면 방 전체에 복사열이 전달되는 방법이다. 방바닥 쪽의 차가운 공기는 온돌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지므로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 공기가 다시 식으면 아래로 내려와 다시 데워져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 결국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의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용하여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인데,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가).

①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방바닥의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식으면 복사열로 위쪽의 공기만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②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이라는 순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③ 대류 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상체와 위쪽의 공기만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④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벽난로는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므로, 따뜻해진 공기가 **차가운 바닥 쪽으로 내려오지 않아** 바닥 부근까지 따뜻해지지 않는다. 이 인과 관계를 밝혀야 앞 문장의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방바닥의 공기가 데워져 위로 올라가는 것은 지문에서 온돌 난방을 설명한 내용이다. 또한 공기가 움직이며 열을 전달하는 현상은 **복사가 아니라 대류**이다. 벽난로의 한계를 설명하려면 위쪽에서 따뜻해진 공기가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② X: 복사열에 의한 난방과 대류 현상의 순서를 제시해도 바닥 바로 위의 공기가 따뜻해지지 않는 까닭은 드러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난방의 순서가 아니라 **위쪽의 따뜻한 공기가 바닥 쪽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원인**이다.

③ X: 지문은 온돌에서 공기가 데워져 올라가고 식으면 내려오는 대류 현상으로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대류를 통한 난방이 상체와 위쪽 공기만 데운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으로 제시된 것은 벽난로의 복사열을 이용한 난방이다.

④ O: 지문에서 온돌은 바닥의 공기를 데워 상승시키지만, 벽난로는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운다. 위쪽에서 데워진 공기가 **따뜻한 상태로 차가운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으므로** 바닥 부근의 공기는 따뜻해지기 어렵다. 이는 바로 앞 문장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혀 '그 이유는'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포도주는 유럽 문명을 대표하는 술이자 동시에 음료수다.
우리는 대개 포도주를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유럽에서는 물 대신 마시는 '음료수'로서의 역할이 크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물이 워낙 안 좋아서 맨 물을 그냥 마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된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는 것이다. 이런 용도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로는 당연히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가 쓰이며, 술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에 물을 섞어서 마시기도 한다.

소비의 확대와 함께, 포도주의 생산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왔다. 포도주 생산의 확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포도 재배가 추운 북쪽 지역으로 확대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포도가 자라는 북방 한계가 이탈리아 정도에서 멈춰야 했지만,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마다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포도 재배가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갔다. 대체로 대서양의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이 상업적으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북방한계선이다.

적정한 기온은 포도주 생산 가능 여부뿐 아니라 생산된 포도주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너무 추운 지역이나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포도주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추운 지역에서는 포도에 당분이 너무 적어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그면 신맛이 강하게 된다. 반면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섬세한 맛이 부족해서 '흐물거리는' 포도주가 생산된다(그 대신 이를 잘 활용하면 포르토나 셰리처럼 도수를 높인 고급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보르도나 부르고뉴처럼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이다. 다만 달콤한 백포도주의 경우는 샤토 디켐(Château d'Yquem)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하는 곳에서 명품이 만들어진다.

포도주의 수요는 전 유럽적인 데 비해 생산은 이처럼 지리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포도주는 일찍부터 원거리 무역 품목이 됐고, 언제나 고가품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렇게 수출되는 고급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그해에 만든 술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아진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백포도주 혹은 중급 이하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이 떨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만 한정된 이야기이며, 그나마 포도주를 병에 담아 코르크 마개를 끼워 보관한 이후의 일이다.

① 고급 포도주는 모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졌다.
②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 이탈리아보다 남쪽에 있을 것이다.
③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거나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이다.
④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는 보관 기간에 비례하여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답 4번

NoteBase

간단한 해설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포도주는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 한정**된다. 병에 담아 코르크 마개를 끼우는 것은 그 적포도주의 보관 조건이므로, 고급 백포도주까지 오래 보관할수록 품질이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셋째 문단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을 고급 포도주의 주요 생산지로 제시하지만, **더운 지역에서 만드는 고급 포도주도 예외로 든다**. 너무 더운 지역의 포도를 활용하여 포르토나 셰리처럼 도수를 높인 고급 포도주를 만들 수 있고, 달콤한 백포도주는 샤토 디켐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는 곳에서도 명품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적정한 기온의 지역이 주요 생산지라는 내용을 '고급 포도주는 모두' 그런 곳에서 생산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② X: 둘째 문단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포도 재배 북방 한계는 이탈리아 정도였으나, 중세 수도원들의 노력으로 재배 지역이 상당히 북쪽까지 확대되었다.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 이렇게 확대된 상업적 재배의 북방한계선이므로, 글의 설명에 따르면 이탈리아보다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을 것으로 추론해야 한다.

③ X: 첫째 문단은 일상적인 식사용 포도주로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가 쓰인다고 설명한다. 이어지는 '여기에 물을 섞어서'에서 '여기'가 가리키는 것은 **저렴한 식사용 포도주**이다. 따라서 물을 섞는 대상도 고급 포도주가 아니라 저렴한 포도주로 보아야 한다.

④ O: 마지막 문단은 대부분의 백포도주와 중급 이하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며,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만 한정**된다고 설명한다. 병에 담아 코르크 마개를 끼운 뒤라는 조건도 이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 붙는다. 그러므로 고급 백포도주를 같은 방식으로 보관한다고 해서 보관 기간에 비례하여 품질이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

NoteBase